

현안과 과제

분노하는 2040, 그러나 희망이 보인다

: 2040의 정치 및 경제 인식 조사

2040에 대한 인식 조사의 필요성	
2040 인식조사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40은 인구수 약 2천 3백만 명으로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세대로서 우리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- 따라서 이들 세대가 지니고 있는 정치 및 경제적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
2040 인식 조사	
구분	특징
현 상황 인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해 20-40대 10명 중 7명은 불만 ·현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해 69.2%가 불만이며, 특히 서울거주자는 78.3%가 불만을 표명하고 있음 ·또한, 성실히 노력해도 더 이상 신분상승이 어렵다(54.9%)는 인식 강함
불만 요인	<p>경제적 요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40은 교육비에 대해 가장 부담감을 많이 느낌 ·교육비용(24.0%) 노후문제(22.8%), 생활비(19.3%), 주거비(15.6%), 직장문제(15.4%) 순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·지역별로는 서울거주자의 경우 주거비(23.0%)에, 지방거주자(충청,전라,경상권)의 경우 교육비 부담에 가장 민감함
	<p>정치적 요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주주의 등 거대담론 보다는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 심화 ·기득권층의 행태(28.2%), 부자위주 정책(25.8%) 등에 가장 불만 ·20대의 경우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는 편견에도 불구하고, 다른 연령층에 비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정치적 의견 표출하기 위해 가장 노력
불만 해결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40은 스스로를 분노, 시련보다 도전 등 긍정 이미지(55.8%)로 좀더 인식 - 10년 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비관적(11.1%)보다는 비슷(41.0%) 혹은 낙관적(48.0%) 이라고 응답해 압도적으로 긍정적 견해를 표출 - 세대 간 갈등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(63.5%)을 많이 표명

시사점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회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분 상승의 통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미래 지향적인 해결 방안 모색 ② 20대의 직장문제, 40대 교육비 부담 등 각 세대에 적합한 맞춤형 불만 해소 방안 마련 ③ 사회 전반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확산시키고, 기득권층의 자발적 기부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

1. 2040에 대한 인식 조사의 필요성

- 인구수 약 2천 3백만 명인 2040은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세대로서 우리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
-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수에 이르는 양적인 측면은 물론 정치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20-40대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
- 경제적 관점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중 가장 활발한 경제 활동을 벌이면서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
-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도 지난 10.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듯이 2040 세대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했음
- 따라서 이들 세대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- 2040의 정치적인 불만 요인이나, 경제적으로 느끼는 부담 요인들을 찾아냄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
- 또한 2040의 인식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여줌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들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만들어야 함

< 연령별 인구수(2010년 기준) >

구 분	19세 이하	20-40대	50세 이상	전체
인구수(명)	11,225,387	22,593,645	14,538,338	48,357,370
비중(%)	23.2	46.7	30.1	100

자료: 통계청

2. 2040의 정치 및 경제 인식 분석 결과¹⁾

○ 조사 개요

-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2040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 보았음
-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일주일간이었고, 전화 설문으로 표본 오차는 95%(±3.1)임

<조사 개요>

구분	내 용
조사 대상	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11명
조사 기간	2011.12.16 ~ 12.22(일주일 간)
조사 방법	전화 설문
표본 오차	95% ±3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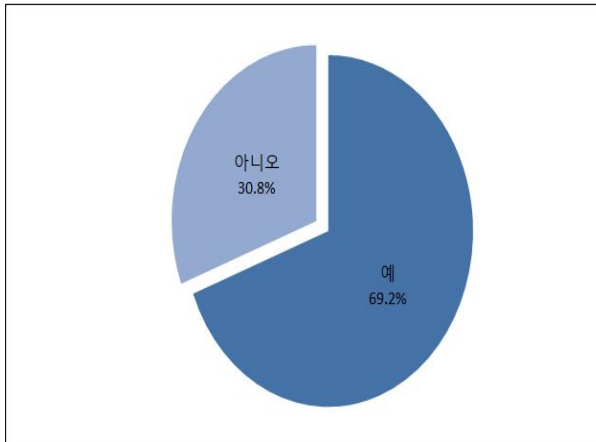
1) 현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한 2040의 인식

○ 10명중 7명은 현재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불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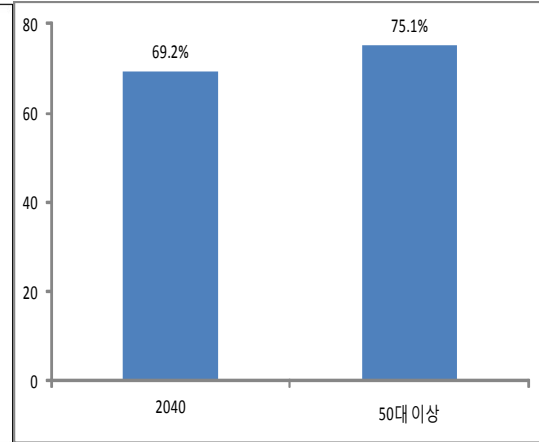
- 20-40대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 등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 등 현재 상황에 불만이 많으냐는 질문에 ‘예’(69.2%)라는 응답이 ‘아니오’(30.8%)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남
- 50대 이상과 비교할 경우 20-40대는 불만이 많다는 응답이 69.2%인 반면, 50대 이상은 75.1%로 좀 더 높은 편임

1) 본 조사의 분석 결과는 KBS ‘추적60분’팀과 공동으로 설문 기획하고,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실사 및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

<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 여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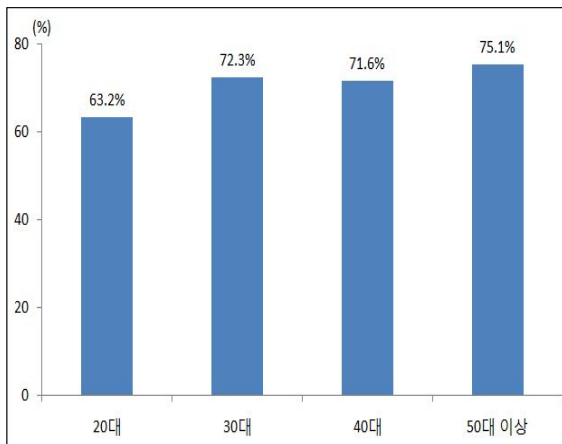


<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 여부(예 응답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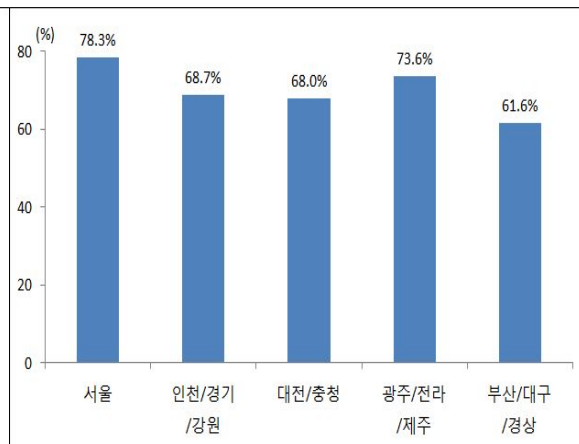


- (연령별 비교) 연령별로는 20대보다는 30-40대가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좀 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
 · 정치 및 경제에 불만이 많다는 응답의 경우 20대는 63.2%인 반면, 30대는 72.3%, 40대는 71.6%로 좀 더 높음
- (지역별 비교) 지역별로는 서울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현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
 · 서울(78.3%)과 전라권(73.6%)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, 경상권이 61.6%로 많이 낮은 편임

<연령별 현 상황 불만 여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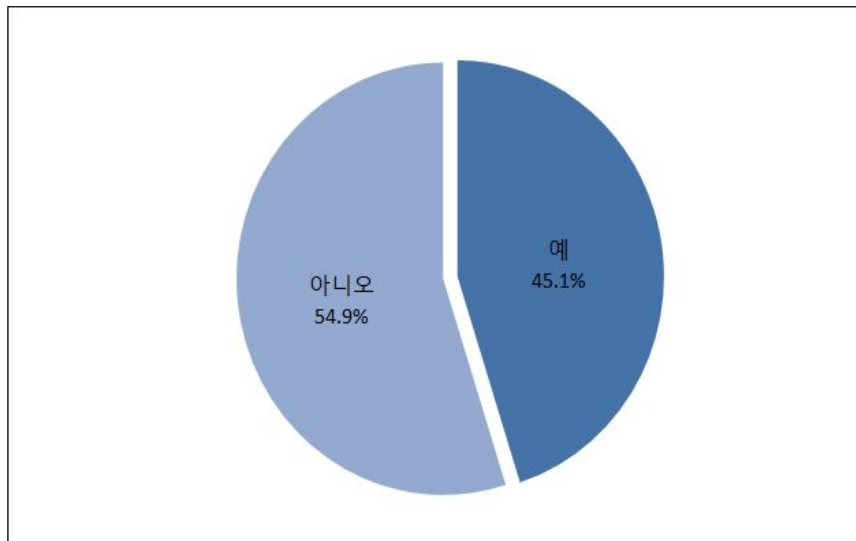
<지역별 현 상황 불만 여부>



○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상승이 어려운 한국사회

- 20-40대는 자신이 아무리 성실히 노력을 해도 신분 상승이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, 역동적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미 사회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
- 신분 상승에 대해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5.1%인 반면,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4.9%임

<신분 상승 가능성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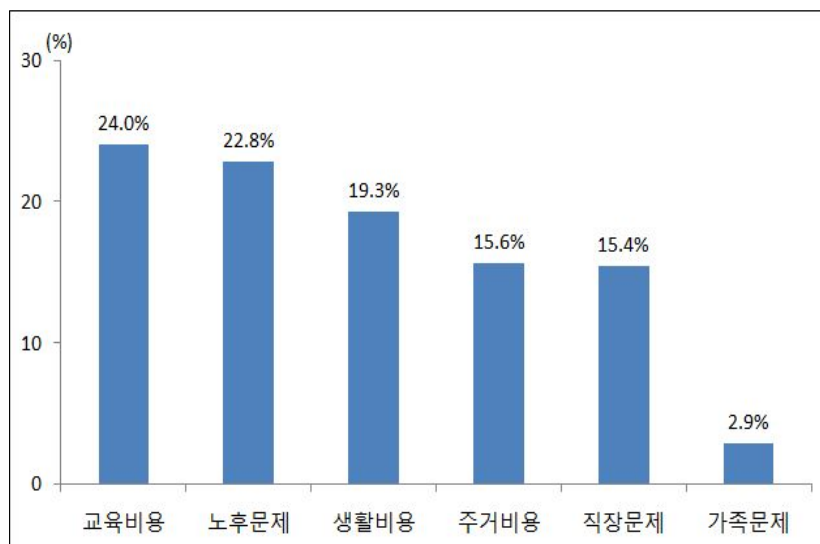
- (직업별 비교) 대기업사무직 종사자(38.5%)나 전문직 종사자(33.3%)는 신분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반면, 중소기업사무직 종사자(47.6%) 생산직(45.3%), 자영업(44.4%) 종사자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
- 교육수준별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, 이미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한계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됨

2) 경제적 불만 요인

○ 2040은 교육비에 가장 민감

- 20-40대는 교육비용(24.0%), 노후문제(22.8%)로 인해 가장 크게 절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다음으로 생활비용(19.3%), 주거비용(15.6%), 직장문제(15.4%), 가족문제(2.9%) 순서임
- 50대 이상과 비교할 경우 20-40대는 교육비가 24.0%인 반면, 50대 이상은 노후문제가 39.7%로 가장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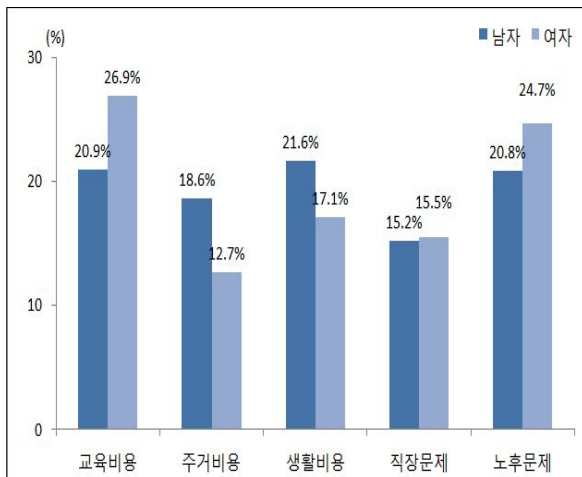
<2040의 경제적 불만 요인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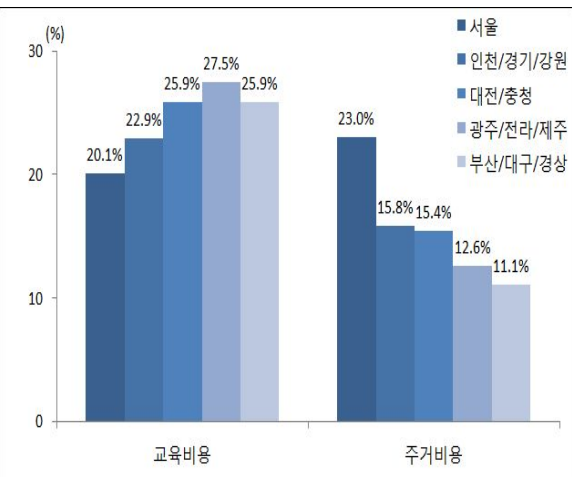
- (성별 비교) 남자는 생활비용(21.6%) 때문에, 여자는 교육비용(26.9%)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특히 결혼한 여자의 경우 교육비(36.9%)에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음
- 남자의 경우 다음으로 교육비(20.9%), 노후문제(20.8%), 주거비(18.6%), 직장문제(15.2%) 순
- 여자의 경우 다음으로 노후문제(24.7%), 생활비(17.1%), 직장문제(15.5%), 주거비(12.7%) 순

- (연령별 비교) 20대는 직장문제(24.4%)와 생활비(23.1%)로 인해 고민을 시작하지만, 30대가 되면 모든 경제 문제에 골고루 부담을 느끼다가, 40대에 이르러서는 교육비(31.1%)와 노후문제(31.5%)의 고민이 최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. 또한 2040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교육비(24.0%) 부담을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20대는 직장문제(24.4%)와 생활비(23.1%), 주거비(17.8%), 교육비(17.2%), 노후문제(14.2%) 순
 - 30대는 교육비(23.1%)와 노후문제(22.0%), 생활비(21.2%), 주거비(19.1%) 순
 - 40대는 교육비(31.1%)와 노후문제(31.5%), 생활비(13.9%), 직장문제(11.2%)순임
- (지역별 비교) 서울거주자의 경우 주거비용, 지방의 경우 교육비용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
 - 서울은 주거비(23.0%), 노후문제(22.7%), 교육비(20.1%)순임
 - 지방은 교육비, 노후문제, 생활비 순임

< 성별 불만 분야 >



< 지역별 불만 분야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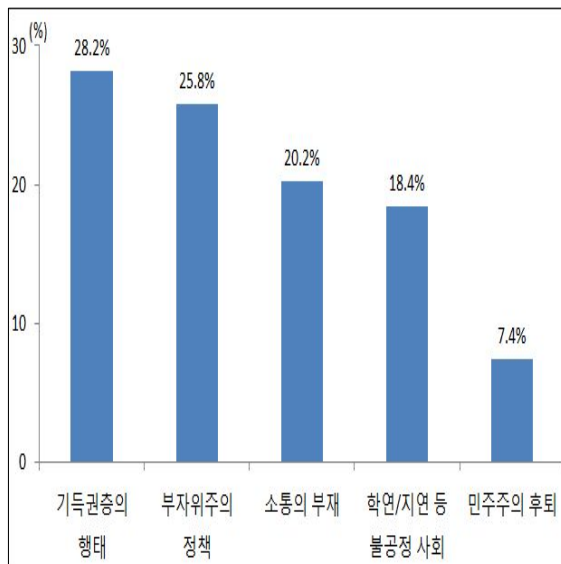


2) 정치적 불만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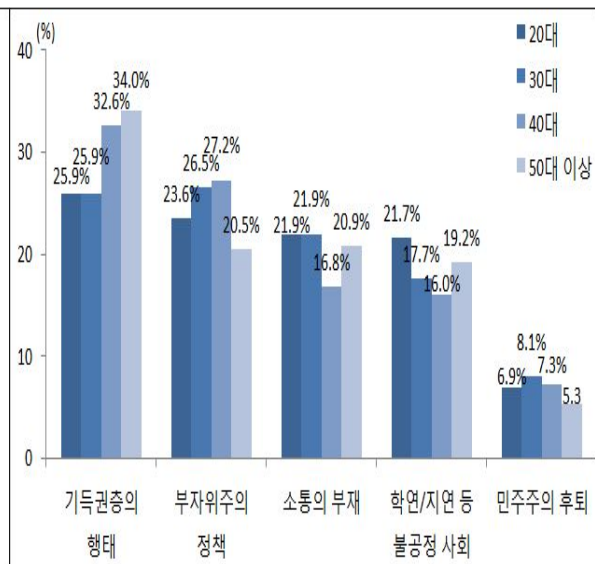
○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이 많은 2040

- 20-40대는 기득권층의 행태(28.2%)나 부자위주의 정책(25.8%)으로 인해 가장 크게 절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다음으로 소통의 부재(20.2%), 학연/지연 등 불공정 사회(18.4%), 민주주의의 후퇴(7.4%) 순서임

<정치사회적 불만 요인>



<연령별 불만 분야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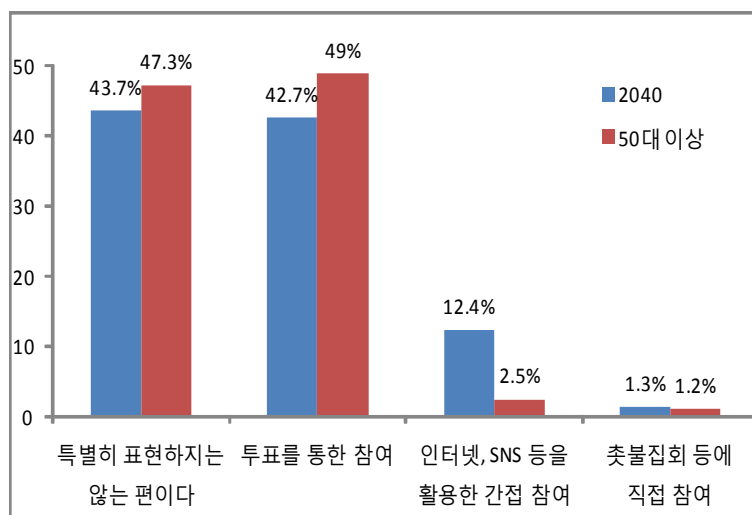
- (연령별 비교) 사회의 불공정성, 민주주의 등 거대담론보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지 않는 기득권층과 그를 비호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2040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, 특히 40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남
- 20대는 기득권층의 행태(25.9%), 부자나 대기업 위주의 정책(23.6%) 순
- 30대는 부자나 대기업 위주의 정책(26.5%), 기득권층의 행태(25.9%) 순
- 40대는 기득권층의 행태(32.6%), 부자나 대기업 위주의 정책(27.2%) 순임
- 50대 이상과 비교할 경우 20-40대는 기득권층의 행태에 28.2%인 반면, 50대 이상은 34.0%로 좀 더 강하게 불만을 나타냄

- (교육수준별 비교) 고졸 이하는 부자나 대기업 위주의 정책(31.6%)에 상대적으로 많이 절망하고, 대졸 이상은 기득권층의 행태(28.5%)에 좀 더 절망함
 - 고졸 이하의 경우 다음으로 기득권층의 행태(27.2%), 학연/지연 등 불공정 사회(20.9%)순
 - 대졸 이상의 경우 다음으로 부자나 대기업 위주의 정책(24.2%), 소통의 부재(21.6%)순

○ 가장 정치적인 세대는 20대

- 자신이 정치적 불만을 투표, SNS, 촛불집회 등 어떤 식으로든 표출하는 사람이 56.3%인 반면, 특별히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43.7%임
 - 구체적 표출 방법은 투표를 통한 참여(42.7%)가 가장 많았고, 인터넷, SNS 등을 활용한 간접적 참여도 12.4%나 되며 촛불 집회 등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1.3% 정도임
 - 50대 이상의 경우 투표를 통한 참여가 가장 높음

<정치적 불만 표출 방법>



- (성별/교육수준별 비교) 남자(39.6%)보다는 여자(47.6%)가, 대졸 이상(41.0%)보다는 고졸 이하(53.2%)가 정치적 불만에 대해 특별히 표현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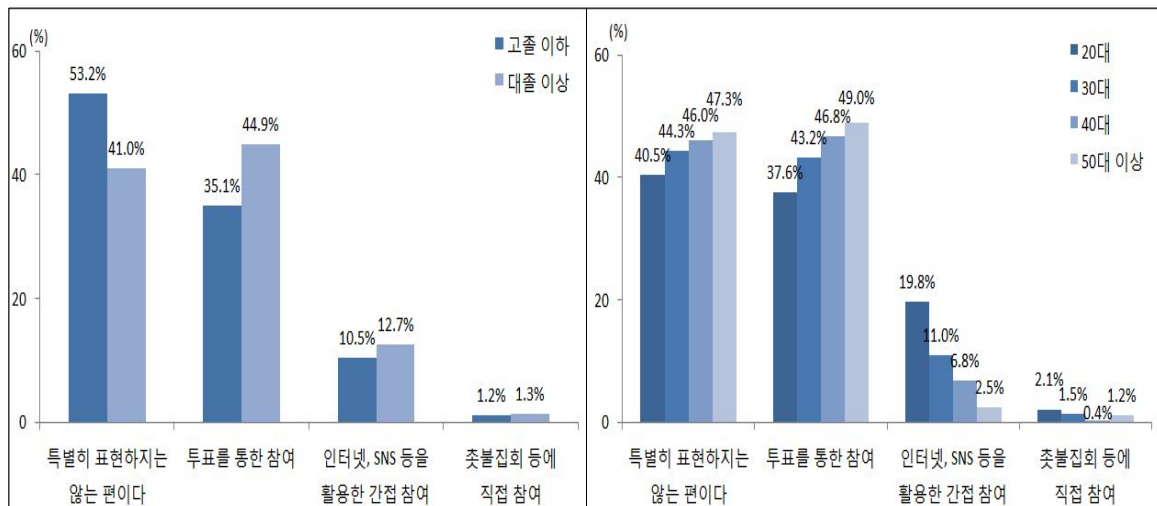
않는 것으로 나타남

- (연령별 비교) 일반적으로 20대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는 편견이 있지만,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정치적 불만에 대해 침묵하기보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세대로 추정할 수 있음

·투표를 통한 참여에 대해서 20대(37.6%)는 30대(43.2%)와 40대(46.8%)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듯 보이지만, 인터넷, SNS를 통한 간접 참여에서는 20대(19.8%)가 30대(11.0%)와 40대(6.8%)보다 좀 더 적극적임
 ·표현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20대 40.5%, 30대 44.3%, 40대 46.0% 순

< 교육수준별 불만 표출 방법 >

< 연령별 불만 표출 방법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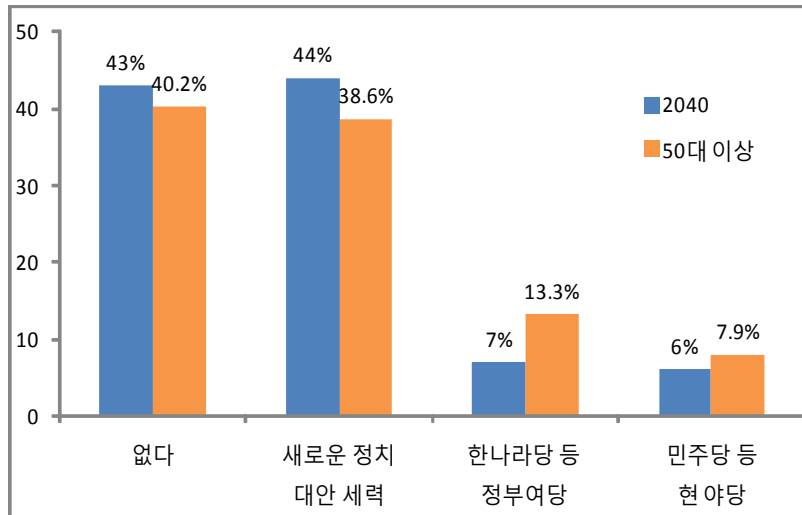
○ 새로운 대안 세력에 대한 기대가 큰 2040

- 자신이 정치적 불만을 여당이나 야당 등 현 정치권보다는 새로운 정치 대안 세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, 자신들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가 없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음
 ·분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정부여당은 7.0%, 현 야당은

6.0%. 새로운 정치 대안 세력은 44.0%로 응답되었으며, 없다는 응답도 43.0%임

·50대 이상의 경우 기존 정당에 좀 더 의존하는 응답이 높음

<정치적 불만 해소 주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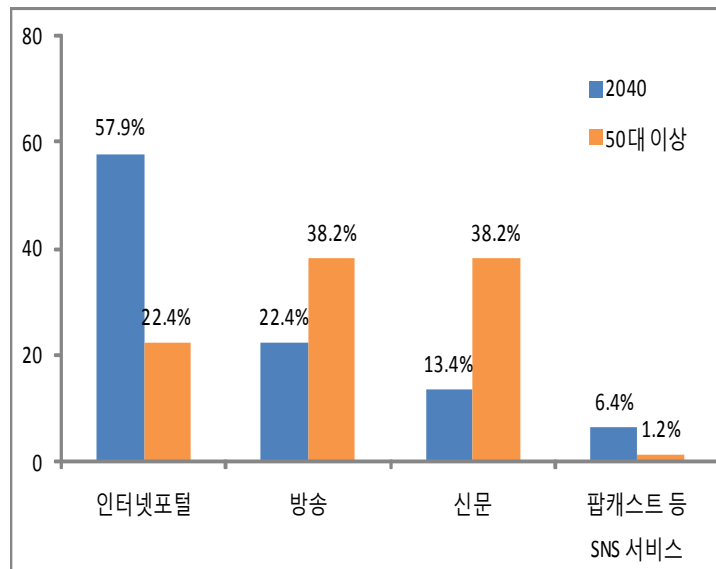


- (교육수준별 비교) 고졸 이하(32.2%)보다는 대졸 이상(47.4%)가 새로운 정치적 대안 세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고졸 이하에서는 해소 주체가 없다는 응답(52.0%)이 과반수를 넘음
- (연령별 비교) 30대(47.0%)와 40대(45.6%)는 20대(38.8%)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대안 세력에 기대하고 있음, 한편, 50대 이상의 경우도 새로운 대안 세력에 대한 기대가 38.6%로 상당히 높은 편임
·없다는 응답에 20대 46.3%, 30대 43.2%, 40대 39.9%, 50대 이상은 40.2%
- (지역별 비교) 새로운 정치적 대안 세력에 기대가 전라권(52.7%)은 높은 반면, 경상권(41.2%)이나 서울(41.8%)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
·'없다'라는 응답에 서울 50.6%, 경상권 45.5%, 인천경기 44.0%, 전라권 33.0%, 충청권 29.3% 순

○ 2040의 정보 획득 채널은 인터넷 포털

- 2040는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채널로 인터넷 포털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, 종이 신문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
- 인터넷포털(57.9%), 방송(22.4%), 신문(13.4%), 팟캐스트 등 SNS 서비스(6.4%)임
- 한편, 50대 이상에서는 인터넷 포털(22.4%)보다는 방송(38.2%)이나 신문(38.2%)을 많이 의존함

<정보 획득 채널>



- (성별/교육수준별 비교) 여자는 인터넷포털 이외에 방송을, 고졸 이하도 방송을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음
- 여자는 인터넷 포털(55.5%), 방송(25.2%)순이고, 남자는 인터넷 포털(60.4%), 방송(19.4%)순임
- 고졸 이하는 인터넷 포털(45.6%), 방송(37.4%)순이고, 대졸 이상는 인터넷 포털(61.3%), 방송(18.1%)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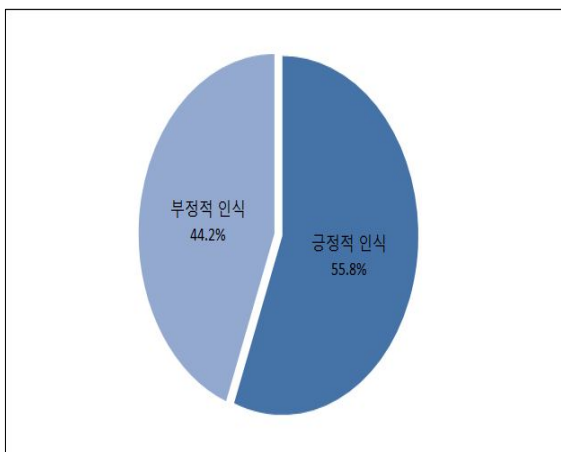
- (연령별 비교) 20대는 압도적으로 인터넷 포털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, 30대는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, 40대는 신문에 의한 의존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
 - 20대는 인터넷 포털(68.2%), 방송(13.6%)순이고, 30대는 인터넷 포털(62.1%), 방송(20.8%)순임
 - 40대는 인터넷 포털(44.1%), 방송(31.9%), 신문(20.2%)순임

4) 불만 해결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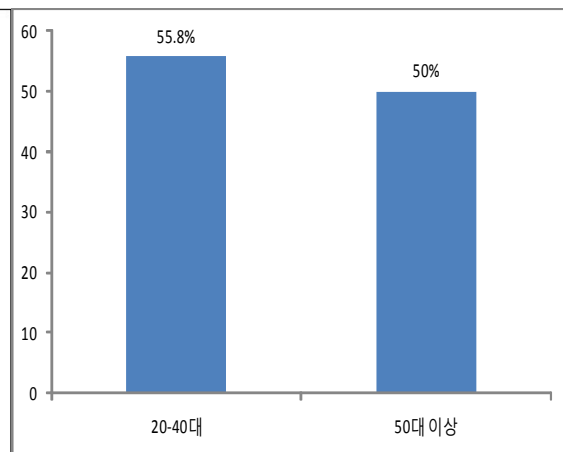
○ 2040은 자신의 세대를 긍정적 이미지로 좀 더 인식

- 우리나라 20-40대는 ‘올해의 2040’의 이미지로 시련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역동성이나 도전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남
 - 올해의 2040 이미지는 역동성, 도전, 에너지와 같은 긍정적 측면(55.8%)이 무관심, 시련, 분노와 같은 부정적 측면(44.2%)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
 - 한편, 50대 이상은 긍정적 인식이 50.0%로 20-40대의 55.8%보다 훨씬 2040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

< 2040 이미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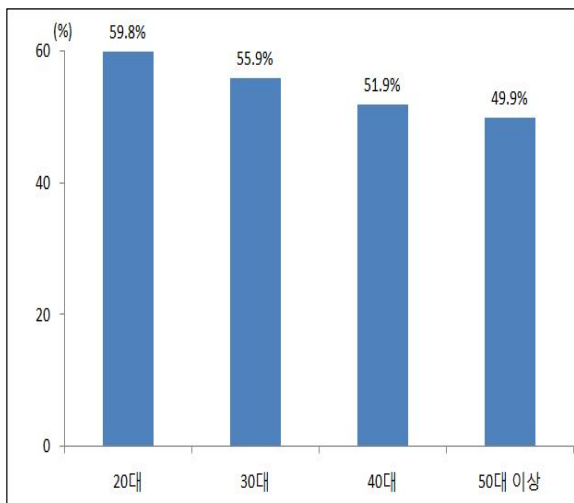


<세대별 2040 이미지 비교(긍정답변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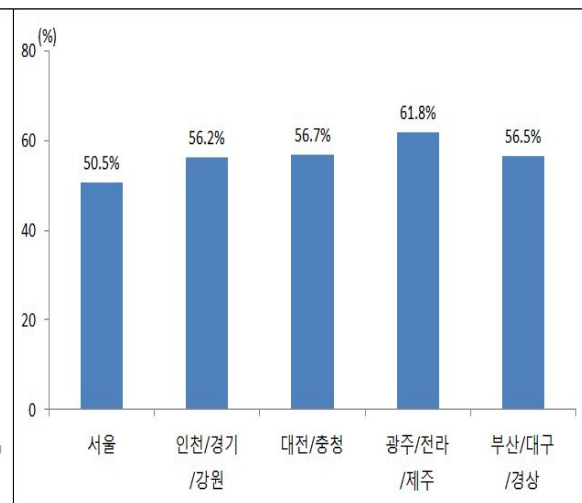


- (연령별 비교) 연령별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‘2040’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, 50대 이상은 훨씬 더 부정적으로 2040을 인식하고 있음
 - 연령별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는 20대 59.8%, 30대 55.9%, 40대 51.9%로 나이가 적을수록 많음
- (지역별 비교)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거주자가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남
 - 서울지역거주자는 긍정적 인식(50.5%)와 부정적 인식(49.5%)이 거의 비슷
 - 반면 지방 거주자는 긍정적 인식이 강했는데, 특히 전라도 지역(61.8%)의 긍정적 인식이 강함

<연령별 2040 이미지 비교(긍정답변)>



<지역별 2040 이미지 비교(긍정답변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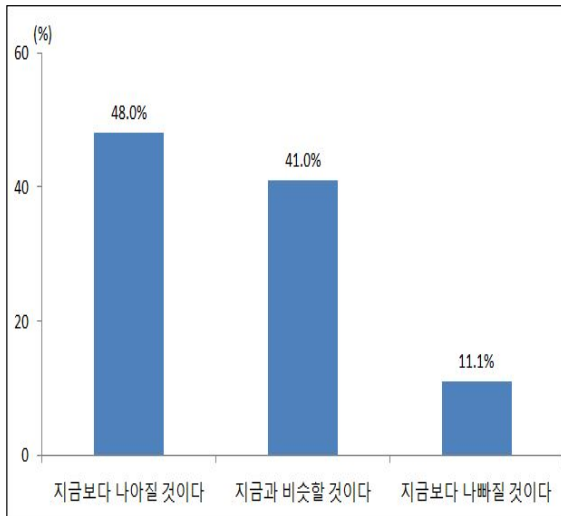
○ 향후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

- 20-40대는 자신이 10년 뒤 경제적 상황에 대해 나아지거나 최소한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,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견해를 표명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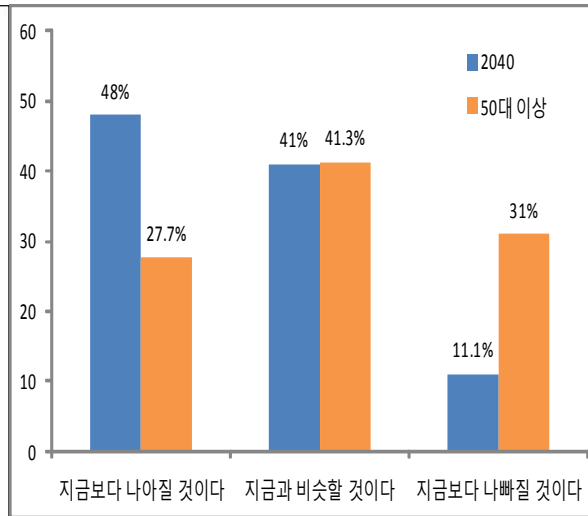
있는 것으로 추정됨

-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8.0%, ‘지금과 비슷할 것이다’라는 응답 41.0%인 반면, ‘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’라는 응답은 11.1%에 불과함
- 50대 이상의 경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음

<향후 경제 상황 변화 예상>



<연령별 경제 상황 변화 예상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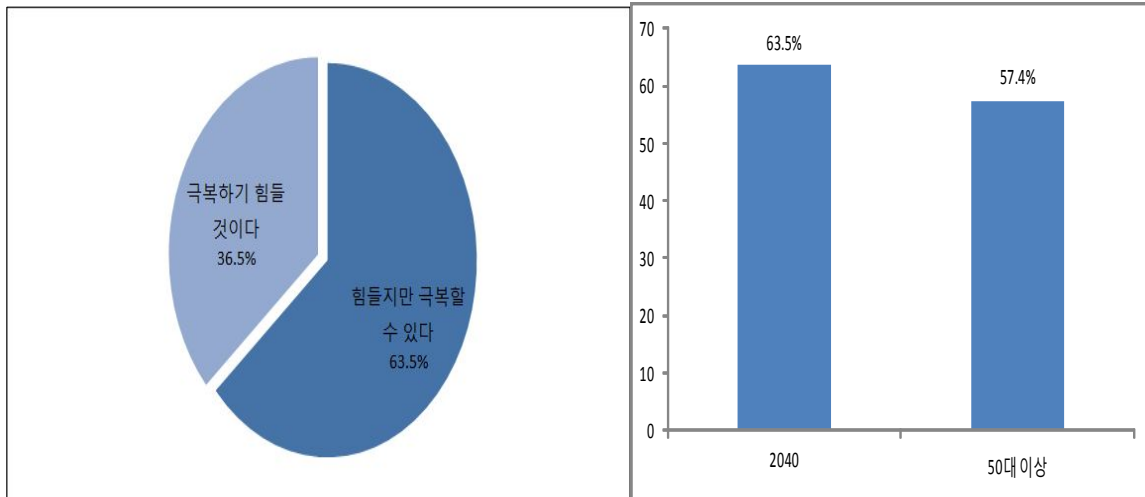
- (성별/교육수준별 비교) 남자(51.9%)가 여자(44.3%)보다, 대졸 이상(49.1%)이 고졸 이하(44.4%)보다 자신의 향후 경제적 상황을 좀더 낙관적으로 평가함
- (연령별 비교) 자신의 향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대는 58.3%, 30대는 48.5%, 40대는 38.0%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신의 미래 경제적 상황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음

○ 세대 간 갈등 해소 가능성은 높아

- 2040중 63.5%가 세대 간의 갈등을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

·한편, 50대 이상은 57.4%가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
·20대(58.7%)보다는 30대(65.4%)와 40대(66.2%)가 세대 간 갈등 해결에
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

<세대 간 갈등 해결 가능성>



3. 시사점

○ 첫째, 신분상승 통로의 개발 및 지속 유지 방안 모색

- 사회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분 상승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미래 지향적인 해결 방안 모색해야 함
- 안정적인 선진국일수록 사회 구조가 고착될 수밖에 없으나,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막혀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이로 인해 다방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
- 따라서 사회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신분 상승 통로를 유지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

○ 둘째, 각 세대별 맞춤형 불만 해소 방안 마련

- 20대의 직장문제, 40대 교육비 부담 등 각 세대에 적합한 맞춤형 불만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
- 20대의 경우 직장 문제와 더불어 생활비용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, 40대의 경우 자녀 교육비 부담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경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
- 예를 들어 40대를 위한 교육 연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될 것임

○ 셋째, 자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인식 정착 및 프로그램의 확산

- 사회 전반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확산시키고, 기득권층의 자발적 기부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마련해야 함
-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득권층의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 국민화합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벤치마킹하도록 해야 함
- 이를 위해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부문화와 세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함 **HRI**

장후석 연구위원 (chahus@hri.co.kr, 02-2072-6234)